

5월 승률 5할 KIA 6월엔 6할?



헤티

타이거즈의 5월 돌아보니...

김주찬·서동욱·김호령 활약... 팀 타율 3할

헤티·지크 3승씩... 마무리 김광수 활약에도

25경기 실책 20개... 수비 무너지며 5할 그쳐

5월의 5월이 지나갔다. 이제는 기회를 노려야 하는 '호랑이 군단'이다.

KIA 타이거즈는 5월 한 달 12승1무12패의 전적을 기록했다. 지난 31일 LG와의 경기에서 12회 연장 승부 끝에 6-6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적자도 흑자도 아닌 5할 살림으로 5월을 마무리했다.

임시선발 체제의 마운드에는 헤티와 김광수가 있었고, 타석에서는 김주찬과 서동욱이 '쌍두마차'였다. 김호령의 재발견도 있었다.

윤석민·임준혁의 부상 공백으로 가동된 임시선발 체제는 나름 선방했다. 5월 한 달 KIA는 5.24의 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면서 넥센(4.58), NC(4.59)에 이어 세 번째로 좋은 기록을 남겼다.

헤티는 5월의 평균자책점왕이다. 5경기에 나온 헤티는 1.80의 평균자책점으로 3승을 수확하면서 팀에서 가장 믿음직한 선발 투수였다. KIA 외국인 투수 사상 첫 무사사구 완봉승을 기록하는 등 롯데 린드블럼과 함께 가장 많은 35이닝을 소화하기도 했다. 지크도 3.49의 평균자책점(6위)으로 3승2패를 남겼다.

뒷문은 김광수가 책임졌다. 11경기에 출격한 김광수는 13.2이닝을 11피안타 5볼넷 12탈삼진 1실점으로 막으면서 0.6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다. 또 6번의 세이브로 두산 이현승, 넥센 김세현의 뒤를 이었고 NC 임창민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5월 공격은 김주찬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지난 4월 타이거즈 역사상 첫 사이클링 히트의 주인공이 됐던 김주찬의 기세는 5월에도 이어졌다. 특히 찬스에 강한 김주찬이었다. 김주찬은 득점권 상황에서 22타수 12안타, 0.545의 타율을 기록하며 전체 1위를 기록했다. LG 박용택과 두산 오재원이 나란히 0.500의 득점권 타율로 뒤를 잇고 있다. 월간 타율도 0.383(94타수 36안타)로 전체 7위다. 홈런도 5개를 때려내면서 18타점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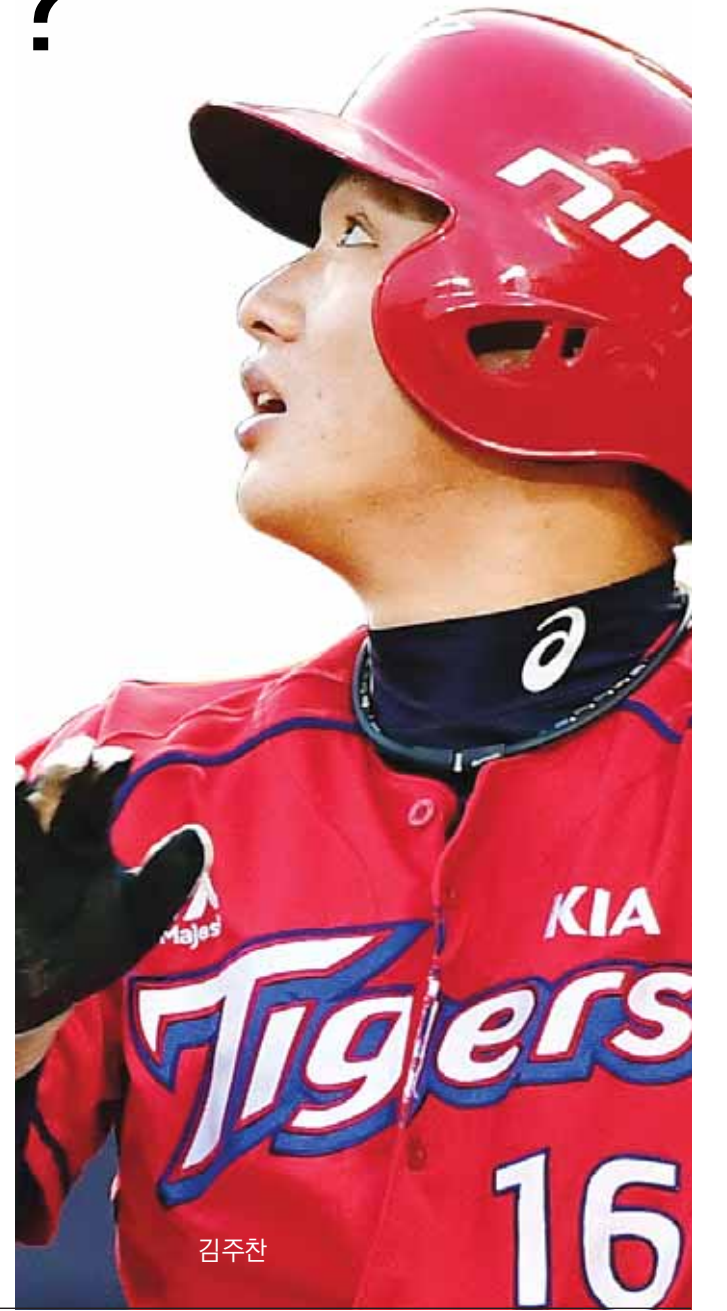
김주찬과 함께 서동욱이 공격의 첨병이 됐다. 전정호로 돌아온 서동욱은 5월 한 달 0.358(67타수 24안타·전체 17위)의 타율, 3홈런, 15타점을 기록했다. 16개의 볼넷을 끌라내기도 하는 등 0.482의 출루율로 전체 5위에 올랐다.

김호령은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이다. 수비로 1군 무대를 접수한 김호령이 눈부신 타격 업그레이드에 성공하면서 0.333의 타율로 타율 3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또 빠른 발을 활용해 6차례 베이스를 훔치며 삼삼 구자욱과 공동 5위에 올랐다.

공격 상승세는 팀 타율에서도 드러난다. KIA는 5월 팀타율을 0.300까지 끌어올리면서 1위 두산(0.330), 2위 넥센(0.318), 3위 삼성에 이어 높은 타율을 만들었다. 그러나 수비에서 승률이 섰다. KIA는 지난 25경기에서 20개의 실책을 남기면서 SK(27개)에 이어 실책 2위다. 실책으로 남지 않은 실수도 많았다. 우려했던 뒷문 단속에 성공했고, 타격도 살려냈지만 결국 부실한 수비에 흔들리면서 5할 승률에 만족해야 했다.

김기태 감독은 "아쉬움도 있었지만 잘했다. 기회가 있었는데 조그마한 부분에서 놓치는 것들이 있었다. 중요한 시기가 왔다. 부상자들이 나서 돌아올 것이다. 책임감 있게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작년 10월에 두산전을 하면서 1승, 한 경기의 중요성을 선수들이 알았을 것이다. 기회가 오면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주찬

'기록 파괴자' 박성현

시즌 4승 승률 66.7%... KLPGA 싹쓸이 도전

평균타수 69.47타... 9년만에 60대 시대

최다상금 5억2767만원... 6억8130만원 남야

최다승 22개 대회서 6승 더하면 10승

'기록이란 기록은 내 가 다 깨주마.' 한국여자 프로 골프(KLPGA)투어 '대세'로 자리 잡은 '장타여왕' 박성현(23·넥스)의 속마음이 요즘 이렇지 않을까.

박성현은 이번 시즌 초반에 3개 대회에 출전해 3승을 거둔 바 있다. 전대미문의 승률 100% 행진은 내번째 출전 대회에서 멈췄지만 이후 3개 대회에서 1승을 보이며 승률이 66.7%다.

투어 일정을 3분의 1가량 소화해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 이른 감은 있지만 박성현은 시즌 최저 평균타수, 시즌 최다승, 시즌 최다 상금 기록 경신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박성현은 9년 만에 시즌 평균타수 60대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박성현은 1일 현재 평균타수 69.47타로 KLPGA 투어 선수 가운데 유일한 60대 타수를 유지하고 있다. 2위(70.69타) 장수연(22·롯데)과 차이가 꽤 크다. 박성현은 풀어치기가 능하다. 64타나 65타를 수시로 쳐낸다. 68타나 69타는 예사다. 하지만 작년까지는 70대 중반 타수로 무너지는 일도 많았다. 애써 낮춘 타수를 오버파 타수로 까먹어 평균타수는 8위(71.49타)에 그쳤지만 올해는 오버파 타수가 확 줄었다. 15라운드를 치르는 동안 오버파 라운드는 딱 세 번이다.

박성현은 안정감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조마조마했던 드라이버도 안정됐고 아이언샷도 정확도가 높아졌다. 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쇼트게임과 퍼팅도 상당히 좋아졌다.

KLPGA투어에서 시즌 평균타수가 60대를 찍은 것은 2006년 신지애(28)가 유일하다. 신지애는 69.72타로 시즌을 마쳐 커다란 이정표를 세웠다. 이후 KLPGA투어에서 60대 타수는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5승을 끌어담으며 12억897만 원이라는 사상 최다 상금을 거머쥔 2012년 시즌 평균타수 1위 김효주(21·롯데)도 70.26타로 60대 타수에 미치지 못했고 작년 1인자 전인지(22·하이트진로) 역시 70.56타로 평균타수 1위에 올랐다.

시즌 최다승 기록 역시 사정권이지만 만만치는 않다. KLPGA투어 시즌 최다승 기록은 2007년 신지애가 세운 9승이다. 4승을 올린 박성현이 6승을 더 때내야 한다. 벅차 보이지만 시즌 초반 승률을 보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2개 대회 가운데 6차례 우승은 지금 박성현의 기량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시즌 최다 상금 기록 역시 산술적으로 가능하다. 박성현은 이번 시즌 6개 대회에서 5억2767만 원을 받았다. 대회당 8800만원 꼴이다. 컷 탈락도 없었다.

김효주가 2014년 12억8977만원을 벌어들일 때 우승도 5차례나 했지만, 컷 탈락이 한번도 없었다. 게다가 무려 16차례 '톱10'에 입상했다. 특히 김효주는 상금이 많은 메이저대회에서만 3승을 올렸다.

기록 싹쓸이에 도전장을 낸 박성현의 성패는 결국 메이저대회에서 갈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손연재 '진검승부'

올림픽 메달 후보 총출동 무대서 2주 연속 월드컵 금 도전

리듬체조 손연재(22·연세대)가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을 2개월여 앞두고 2주 연속 월드컵 금메달에 도전한다. 손연재는 3~5일(현지시간) 스페인 과달라하라에서 열리는 2016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7차 월드컵에 출전한다. 지난달 27~29일 소피아 월드컵에 이어 2주 연속 월드컵 출전이다.

손연재는 소피아 월드컵에서 개인종합 동메달을 비롯해 종목별 결선 곤봉 금메달, 후프와 리본 은메달, 볼 동메달을 목에 거는 등 전 종목 입상에 성공했다.

개인종합에서 자신의 역대 최고 점수인 74.200점을 기록했고 후프에서도 18.650점으로 FIG 공인 대회 기준 최고점을 얻는 성과를 거뒀다.

소피아 월드컵 개인종합 금메달은 세계 최강자 야나 쿠드랍체바(75.750점·러시아), 은메달은 간나 리자트디노바(74.250점·우크라이나)였다. 그러나 쿠드랍체바는 곤봉 결선에서 수구를 떨어뜨리는 실수로 4위(18.250점)에 그쳤고 리자트디노바도 리본 결선에서 3위를 차지했지만, 프로그램 시작 때 리본이 꼬이는 실수를 범했다.

반면 손연재는 큰 실수 없이 자신의 연기를 소화하며 감점요인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손연재는 4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월드컵 시즌 점수와 올림픽 점수는 확연하게 다르다. 올림픽이 좀 더 엄격해진다"면서 "연기를 깔끔하게 한다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올림픽까지 남은 기간 체력훈련과 함께 연기의 완성도를 높이며 실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던 손연재로서는 지난 소피아 월드컵이 자신의 훈련 성과를 확인한 자리였다. 이번 과달라하라 월드컵에는 리우올림픽 메달 경쟁자들이 총출동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우선 세계 투톱이자 유력한 올림픽 금메달 후보인 야나 쿠드랍체바, 마르가리타 마룬(이상 러시아)이 출전신청을 했다.

또 손연재의 실질적인 경쟁자로 꼽히는 간나 리자트디노바(우크라이나), 멜리타 스타뉴타(벨라루스)를 비롯해 지난해 세계 선수권 개인종합에서 4위에 오른 샬로메 파자바(조지아) 등도 연거푸 출전한다.

올림픽은 심리적인 부담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손연재가 이번 월드컵에서 경쟁자들의 연기에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연기를 펼칠 경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KBO '나라사랑 캠페인' 유공자 초청·시구 행사 등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국가보훈처와 '나라사랑 캠페인'을 연다.

10개 구단 선수단 및 심판 전원은 3일부터 5일까지 광주, 잠실, 대구, 사직, 수원 등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리는 KBO 리그 경기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 정신'의 의미가 담긴 '나라사랑나무' 패치를 모자와 헬멧에 부착하고 경기를 한다.

또한 KBO와 국가보훈처는 1일부터 5일까지 '나라사랑 주간'으로 정해 보훈

가족 초청 및 단체 관람, 국가유공자 시구 및 애국가, 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의장대 공연, 나라사랑나무 배지 배부, 관련 홍보 영상물과 문구 전광판 표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나라사랑나무는 국가를 위한 희생 정신이 최고의 가치임을 표현한 상징물로 태극 무늬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심'을 의미하며, 파랑새와 새싹은 '자유'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